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 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김 현 숙

〈차 례〉

- I.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발견
 - II. 제주도 <손 없는 색시> 유형의 각편 비교 : 채순화본과 김순자본
 - III.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 IV. 제주도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의의
- <부록>

I.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발견

제주도에 이 설화가 전승되는 것만으로도 제주도 설화의 중요성이 저절로 입증된다. 우리나라에 이 유형의 설화가 모두 여덟 편만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추가로 작업을 하다가 이 현용준의 《제주도민담》에 한 편의 자료가 있음이 확인되었다.¹⁾ 제목이 <배나무 배조주뜰>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래 이 설화의 명칭과는 별도로 전승되는 것인 줄 알았으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설화임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 유형의 설화가 모두 아홉 편임이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 작업의 경과 끝에 다시금 제주도에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발간하는 《백록어문》에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²⁾ 이 자료는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현용준,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이 자료의 채보자는 채순화라고 되어 있으며, 1959년 8월에 채록되었으며, 채록자는 신광숙이라는 학생으로 되어 있다.
- 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편, 《백록어문》 제16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이러한 사실은 경기대학교에서 논문 지도를 받은 정성훈이 발견해서 필자에게 제공하여 알게 되었다.

〈양어머니 이야기(다슴어멍)〉이라고 되어 있어서 쉽사리 제목과 일치하는 유형의 설화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 자료를 제공한 화자가 현용준의 자료와는 다르게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되어서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김순자가 생존해 있었고 김순자에게서 다시금 동일한 자료를 세 번에 걸쳐서 거듭 채록하여 이 유형의 이야기에 제주도 자료가 모두 네 가지 각편을 추가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제주도 자료의 기억이 현저하게 망실되어서 원래의 자료와는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두 각편의 자료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짜여져 있어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리라 예측된다. 채순화 구연본은 비록 여고 학생이 방학숙제로 어머니가 구연하는 것을 받아 적은 자료이기는 해도 제주도 말로 제주도의 고유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짜여져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심방들의 본풀이의 전승 법칙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삽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아기자기 하게 짜이는 구실을 한다. 이에 반해서 김순자 구연본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구연본보다 육지부에 전승되는 자료와 유사해서 주목된다. 제주도의 고유성보다는 이 설화 유형의 보편적인 법칙에 충실한 자료임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두 가지 구연본을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서 우선 서사 단락을 단락소(motifeme)로 정리해서 이 단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체적 실현 양상을 자세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단락소는 동사형으로 제시한다. 동사형의 정리가 필요한 것은 동사는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고 더 나아가서 사건의 전이 단계를 분명하게 예시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 동사만은 아니다. 간혹 동사보다 심층적 차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근본적 상황들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근친상간, 근친금혼, 인간의 대지기원설, 인간의 대지기원설 부정 등이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르게 상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손, 비둘기, 배나무 등이 그것이다. 상징적 요소와 근본적 상황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대립소인데, 이 둘을 매개하는 것이 동사이다.³⁾ 궁극적으로 동사의 체계가 중요하고 동사가

3) 이러한 생각은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에 힘 입은 바이다. 특히 오이디푸스 신화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생각을 빌어 왔다. 동일한 생각을 질베르 뒤랑이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에서 한 차례 고양시킨 바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분석 방법은 그의 다른 저작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 특히 그의 신화학 연구총서인 신화연구서 4권은 신화연구의 기본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요긴한 저작이다. 이 저작의 연구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방법에 의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읽어내는 총체가 이야기의 구조임이 증명되리라 예측된다.

다음으로 제주도에 전승하는 각편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미 이 방법에 의한 설화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연구에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설화에서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여성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주체로 해서 읽어야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의 진척이 없어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인 손 없는 색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아쉬운 해석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글을 통해서 제주도 자료의 보편적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점검할 수 있다.

특수성이 보편성의 근간이 되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진리이다. 제주도 자료가 제주도로 한정되지 않고, 보편성의 열린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료의 발견과 더불어서 자료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 자료가 지니는 고유한 생명력이 발견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이에 관한 보편적 해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 자료가 보편성을 가지면서 널리 전승되는 의의가 증명되리라 예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한 시론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

II. 제주도 <손 없는 색시> 유형의 각편 비교 : 채순화본과 김순자본

제주도에 전승되는 <손 없는 색시> 설화는 현재까지 각편이 모두 다섯 편이다. 다섯 편은 제보자가 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편의 각편만 전승된다. 두 각편은 유형 자체가 동일한 내용이나, 전승의 실상을 감안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두 편의 실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상화된 단락을 제시하고 두 각편의 구체적 실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 | | | | |
|----------|-----------|-----------|----------|
| (1) 죽는다 | (2) 들어온다 | (3) 조작한다 | (4) 자른다 |
| (5) 사라진다 | (6) 나간다 | (7) 혼인한다 | (8) 떠난다 |
| (9) 낳는다 | (10) 조작한다 | (11) 내쫓는다 | (12) 꿈꾼다 |

(13) 붙는다 (14) 정착한다 (15) 찾는다 (16) 만난다⁴⁾

동사형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개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손 없는 색시> 유형의 설화가 동사형으로 정리되어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의 죽는다는 단락소는 계모형설화의 일반적인 서두 상황을 갈무리하는 요소이다. 기존 가족 구성원 사이의 해체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단락소이다. 최소한의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딸 등의 사이에 균열이 가게 된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우선시 되고 딸의 처지가 강조되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김순자 구연본에서도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구연본에서 마치 공식구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정감이 거세된 것처럼 되어 있다. 문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배조주 딸이 어린 때, 어명이 오뎨 죽어부난 배조준 다슴어명을 돌아와서, (58면)

어느 연날에 이제 딸 하난 난 아방이 각신 죽어 비서, 죽어부난 이제 혼자 살질 못 허난 그 딸난 각신 얻어다 살아서 이, (61면)

딸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이므로 어머니의 죽음 사실이 비교적 정감이 거세된 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손 없는 색시> 유형에서는 어머니의 존재는 단순히 이야기에서 소거되지 않는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그러한 개입 방식은 계모형 설화에서 널리 확인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다른 동물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나타난다. 이 설화 유형에서는 날짐승으로 바뀌어서 독수리나 매 같은 면모로 나타난다. 특히 손이 잘려지는 상황에서 어머니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나 일정하게 손의 단절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어머니가 꿈을 통해서 이야기에 개입한다. 손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구체적 방식을 예시하니 물에다 손을 담그라고 하는 점이다. 어머니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색시의 손 절단과 손 부

4) 단락소의 동사형 정리는 체계적으로 해야 하나, 섬세한 관찰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활에 깊이 관여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에 깊이 참여한다.

계모형 설화에서 딸을 두고 죽은 어머니는 혼령으로라도 되살아나서 이야기에 개입하게 된다. 〈콩쥐 팥쥐〉 설화 유형에서도 죽은 어머니가 도와서 콩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에도 새들이 등장한다. 여성과 새가 관련되는 사실은 신화에서부터 민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여신이 곡모신이고 곡모신은 새와도 연결되므로 아마도 이렇게 새와 곡모신의 자취가 후대적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도 여성주인공과 곡모신의 관계가 환기된다.

(2)들어온다의 주체는 바로 계모이고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된다.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아내가 기왕의 아내를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기왕의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는 갈등의 소인을 갖게 된다. 계모가 들어와서 전처의 딸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연본에서는 형상화한다

호난 다슴어멍은 똥신디 메날 아침 방애만 지렌 허면 아침 일찍거니 일어난 방앨 지었주기 (1면)

사노렌 허니까는 아 이 아이가 그럭저럭 현 게 열댓이 넘어 아가씨가 뉘 가는 거아 니? (1면)

두 가지 문면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감추어져 있으나 적절하게 성숙했다는 사실이다. 앞의 인용문에서는 매일 아침 방아만 짚으라고 했으나 그만큼 숙성한 증거이다. 뒤의 인용문은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통적 사실은 아이가 아니라 혼인 적령기에 이른 여성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가 어느덧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서 어엿한 처녀가 된 사실을 강조한다. 처녀가 되었다고 함은 잉태할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임을 적시한다.

(3)은 계모가 (2)의 사실을 이용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는 점을 말하는 요소이다. 조작의 주체가 계모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계모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포함한다. 그 문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다슴어멍은 부애가 난 물을 꿰와단 쥘이 우테레 지쳐부난 쥘인 죽어 불언 호난, 어멍은 쥘이 가족을 베면 배조주 똥 누영 자는 자리 알에 노아두언, ... 이불을 개단 찻

덩이가 나오나네 스룻 와달싸멍, “처녀가 애기 배여난 지와 부렀저” (2면)

들영 보난 그추록 허난 그 께는 물을 중이 나온디레 줄닥 대까나네 중이가 할딱
가죽 벗어지난 똑 애기(?) 거 달마서이 경허난 그 걸 싸단 톨 눈디 강, 이불 속에 가
네, 이제 곱정놔뉘, ……계난 그 걸 이젠 애기 낙태했젠 이불 속에 강 곱찌분 거라.
(1면)

문면에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사실은 조작의 방법이다. 조작은 처녀가 임신했다
는 점을 꾸미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엌에 있는 쥐이다. 계모
형 설화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설화에서도 주인공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인
공을 대신해서 죽는 동물들이 있다. 부엌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자연과 문화
의 공간을 오고 가는 존재가 있으니 이들이 쥐이거나 두꺼비이다. 그 가운데서도
쥐는 항상 계모형 설화에서 두드러지는 구실을 한다.

쥐는 서식지 자체를 인간의 언저리에 두고 있어서 인간과 정보도 공유하고, 신
화적 기원까지도 이룩하고 있는 동물이다. 계모가 쥐를 이용해서 다슴딸의 정절을
훼손시키는 것은 신화적 자취의 변형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혹하다. 두 구연본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물을 끓여서 쥐에게 끼얹고 껍질을 벗겨서 다슴딸의
잠자리에다가 갖다 두고 아이를 지웠다고 말한다.

모해의 방식은 동일하나 이유는 다르다. 채순화 구연본은 계모가 화가 나서 쥐
를 잡아 죽인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쥐가 다슴딸에게는 흰구슬을 물어다가 주었으
나 다슴어머에게는 개똥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방아 찧기 흉내를 내면 흰구
슬을 물어다 주는 전례를 계모가 그대로 모방했으나 계모에게는 뜻밖의 결과가
생겼다. 그에 견주어서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순전히 다슴딸을 모해하기 위한 수단
으로 선택되었음이 확인된다.

계기가 다르기는 해도 계모가 부엌의 쥐를 이용해서 의붓딸이 사사로이 남성과
관계해서 자식을 지웠다고 모함함으로써 자신의 적대자인 의붓딸을 제거할 빌미를
갖게 된다. 계모가 의붓딸을 모함하는데 결정적 구실을 하는 존재가 곧 남편이다.

(4)는 계모의 남편이면서 딸의 아버지가 다슴딸의 손을 자르는 단락소이다. 처
녀의 손이 아버지에 의해서 잘려지는 것인데, (3)의 빌미가 (4)의 실현으로 나타
난다. 딸의 잘못을 규명하지 않고 계모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듣는 과정이 각
별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두 구연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 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어머 아방신디 말하길, “나 이 억울혼 거 죽영 말쿠다” 혼명 이녀 풀몰 끈언 대에
무견 집가지에 돌아매난 (2면)

“너 이새끼, 너 막 풀 모가질 그차 불겐.”허난.

“아이고 아버지 그침 아니 날 죽여도 조무덴, 난 어디 혈말이 어신걸 어떻합니겐”
해도 이 아방은 아방이난 막 이 지방에 놔네, 나대로 그친겐 해서 풀을 그치겐, 원촉
이린 헨게, (1면)

딸에게 아버지의 추궁이 가해지자 딸의 반응은 전혀 뜻밖으로 온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치한다. 앞의 인용문은 딸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팔을 자신이 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친의 추궁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처리로 자신의 팔을 하나 끊어서 대에 묶어서 집 가지에다가 매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장을 가지고 끊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팔을 자르는 주체가 아버지이다. 딸이 결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문지방에다가 딸의 팔을 갖다 대고 자른 것으로 나타난다. 딸의 팔을 무엇으로 잘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팔을 한쪽만 잘랐지 양쪽을 자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제주도 설화 유형이 가지는 특별한 변이라고 생각되며 단락소의 변이가 상당히 달라졌음이 확인된다.

딸이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랐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직접 잘랐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격차가 큰 것이다. 자신의 팔을 자른 것으로 정절이 증명이 됐는가 여부는 이 설화의 근본적 관심사가 아니다. 설화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주인공의 축출과 불구로 인한 고난에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일정한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팔을 잘랐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팔을 잘랐거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한 팔만 잘려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5)는 '사라진다'이다. 잘려진 팔의 행방이 매우 소중하며 이에 대한 단락소이다. 팔의 행방은 두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흰비둘기 흑비둘기 놀아완 “배나무 배조주 딸 불상하다” 허연 된 그 풀을 물언 가 부런. (2면)

왼쪽 풀을 그치면 허난 그창 계민 이제 어디래 대경 무신 가마귀 달은 게 오랑 물어가거든 “나 안 현줄 압싸” 허난. 걸 찍엉 그치난 진짜로 대끼난 그것이 오란 ‘확’ 차기비여, 차가부난 아방은 “아! 이상하다” (1면)

사라지는 과정이 일치한다. 앞에서는 끊어진 팔을 대나무에다가 매달았는데 그것을 흰비둘기와 흑비둘기가 날아와서 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뒤에서는 가마귀 닮은 것이라고 했으나 가마귀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분명하지 않다. 김순자는 다른 각편에서 ‘똥수레기’ 닮은 것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뒤집고 있다. 그러므로 날짐승인 새는 일치하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새가 잘려진 팔을 물고 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새와 팔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두 가지 관련사항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가 새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 신화뿐만 아니라 세계 신화에서 여신은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론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신의 기능 가운데 새를 부리는 존재가 곧 여신임이 확인된다. 잘려진 팔을 물고 가는 것은 새이며 이 새를 물고 오게 하는 주체가 어머니라면 이들의 연결고리가 찾아지는 셈이다. 실제로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에서 잘려진 손의 구원은 어머니의 영혼이라고 보는 각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근거가 있다.

(6)은 주인공인 여성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축출되는 단락소이다. 계모가 자신의 적대자인 딸을 내보내고 남편을 독차지하고 집안 전체를 독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두 각편에서 여성이 축출되는 과정이 다소 변이가 있으나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제주도 본풀이의 대목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한 변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수사적일 따름이고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단락소가 소박하게 처리되었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는 해도 의미상으로는 축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7)은 본집에서 쫓겨난 처녀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집을 결성하는 것을 뜻한다. 채순화 구연본과 김순자 구연본은 이 단락소를 각기 다르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혼인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혼인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발견의 주체는 어머니나 구체적으로 혼인을 요구하는 쪽은 아들이다. 이 단락소는 제주도이야기나 본풀이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큰 나무에 올라간 다슴딸

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아들더러 나가보고 오라고 했더니 첫째와 둘째는 동일하게 대답한다.

개냥 입은 번들번들, 모시 입은 헛들헛들, 담고망은 바롱바롱 아모 것도 엇입데다.
(2면)

섬세한 표현법이 드러나는 대목이나, 중요한 그림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1편의 실상에 치중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와 둘째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셋째의 행위는 각별하다. 먼저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소변을 보고 무슨 소리가 있어서 위를 쳐다보니 여성이 있어 그를 발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는 나무 위의 존재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확인한다. 사람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 병풍 뒤에 숨겨 두고 첫째와 둘째가 한 것처럼 동일한 말을 하게 된다. 세 아들이 상정된 것은 제주도 본풀이 설화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변이라고 생각되나 셋째의 행각은 예사 설화 유형의 법칙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게다가 소변을 보는 것은 왕성한 남성의 생식력을 뜻하므로 소중한 의의를 갖는다.

설화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셋째 아들이 자신의 방에다 숨겨 놓고 손 없는 색시와 살림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둘 사이의 비공식적인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종에 의해서 발각되고 부모의 공식적인 허락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내기가 요구된다. 셋째 아들이 먼저 수수께끼를 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한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수수께끼를 제안한 쪽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례가 있으므로 이 과정의 수수께끼도 동일한 직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천지왕본풀이>에서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수수께끼를 제안해서 자신이 승리하는 것과 셋째아들이 어머니에게 수수께끼를 걸어서 승리하는 것은 동일한 사례이다.

아들의 주장에 대해 내기에서 졌더라도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색시에 게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과제가 부과된다. 색시가 천하일색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색시가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 쪽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도포를 만드는데 핵심이 있다. 이 시험에 색시가 통과해서 사적인 만남이 공적인 관계로 바뀐다.

채순화 구연본은 혼인하는 대목에서 제주도 설화의 변이적 요소를 가미했음에

도 불구하고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채순화 구연본에서 발견된 사실이 김순자 구연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게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양상이 달라서 문제이다.

김순자 구연본에서 색시와 도령의 만남은 시아버지에 의해서 주선된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색시가 콩을 얻어다가 큰 집의 마당에서 까먹다가 주인 하르방에게 들킨다. 색시가 콩을 까먹었다는 사실도 단순하지 않다. 콩이 지니고 있는 신화제의적 맥락이 있는데 콩은 풍부한 생식력을 강조하는 요소이다. 서울 곳에서 콩은 장차 여러 단골을 거느린다는 신앙이 있다. 내림곳에서 종지집기를 하는 과정에서 콩의 기능이 확인된다. 이뿐만 아니라 콩은 신화적으로도 풍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이 거듭 확인된다.⁹⁾

손 없는 색시가 비록 콩을 얻은 것이기는 해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징표로 삼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콩을 까먹다가 주인 하르방에게 들켰는데 콩은 여성성의 상징으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요소이다. 주인 하르방의 마음에 들어서 한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녀는 총각과 혼인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채순화 구연본에 견주어서 김순자 구연본이 상징적 요소에서는 설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겠다. 그러나 인물의 측면에서는 김순자의 구연본에서 격심한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 여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의 '떠난다' 주체는 혼인한 남성의 집안 이탈이다. 아들이 집안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각편 모두 공부를 위해서이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아들은 글공부 삼년 활공부 삼년'을 위해서 떠났으며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이제 서울 어디 무신과거뵙' 하러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혼인한 여성을 두고 남성이 떠나간 것은 중대한 단락소이다. 게다가 여성이 전후문맥으로 보아서 잉태하고 있었으므로 남성의 출타는 더구나 특별한 사건이다.

(9)의 '낳는다'와 (8)의 '떠난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출산은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된다. 남성과 여성의 다정한 관계가 일차적으로는 거리가 생기고, 이차적으로 아이가 생김으로써 더욱 훼손되는 계기가 된다. 이 훼손의 과정은 중간의 투입자가 생기면서 혼란

5)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아시아, 2003, 73~83면.

스러움으로 가증된다. 그러나 생명의 출생은 신비롭고 미래 지향적인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남성과 여성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더욱 곡해되는 것은 중간의 틈입자인데 이 틈입자의 개입은 (10)의 편지 조작으로 구체화된다. 편지 조작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인 또는 머슴에 의해서 전달되는 편지가 계모의 집에서 조작된다. 편지 조작은 계모의 지속적인 사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아들과 색시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 사정을 말하는데, 두 구연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편지종류 편지행방	원 편지	조작된 편지
집에서 아들로	앞 이명에 뒷 이명에 돌넘이여 막양 독지에 금새별에 오신도신 현 아들을 낳겐(김순자 본)	이제 이상헌 애길 나시매, 이걸 내 조차 부느냐 어평허노니(김순자 본)
아들에서 집으로	X 이젠 계도 보내지랑 말양 아십썬, 나갈 동안이랑 잘 행 살아십썬, 아이고 경헌 병신 애길 나고 대고, 나가도록 이랑 고만히 돌양 살람십썬. (김순자 본)	메누리 곧 내쫓아 뵈서(채순화 본) 아 이젠 영헌 애길 나시매 내조가불렌(김순자 본)

원 편지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적극적 구실을 하는 인물은 계모이다. 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계모의 확인에 의해서 변질되고 아들의 뜻 역시 계모에 의해서 왜곡된다. 그러므로 계모의 개입은 (3)의 조작에 의해서 다시 한번 (10)의 조작을 감행함으로써 정절을 왜곡하는데 이어서 손 없는 색시를 시집에서 내쫓는 것까지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문제는 채순화 본과 김순자 본이 상당히 다른 양상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었던 아이가 매우 소중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음에 견주어서 남편의 심정을 가장한 계모의 말을 빌어서는 아이를 이상한 존재라고 하고 있다. 남편은 아이의 이상여부를 듣고서 자신이 그곳에 가서 확인할 동안의 말미를 요구하며 함께 있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편지는 왜곡된다. 채순화 구연본은 편지의 원문이 아예 없다.

(11)은 처녀가 내쫓기는 과정이 제시된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그냥 쫓겨나되

계절이 제시되지 않음에 비해서,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눈이 오는 겨울철로 제시된다. 한쪽 손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업고 쫓겨난다. 문화의 상태인 집에 기거하지 않고 야생의 상태로 축출된다.

(12) '꿈꾼다'는 쫓겨난 색시가 겪는 야생상태에서의 혼돈이다. 꿈에 나타난 존재가 각별하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질에 앉은 잠을 잠시난, 꿈에 즈기 나온 어명이 나타난 흐는 말이 "일로 가당 가당 보민 못이 이신디, 혼 못엔 손 식곡, 또 혼 못엔 발 식곡, 또 혼 못엔 애길 훌락하게 업업 노싯어가민 애기가 터러져 가거들랑 <아이고, 나 아기여!>하면 애길 안으면 느 긴어진 풀이 돌아난다." (채순화 구연본, 5면)

감감 어둑도록 간 보난, 어디 담 어염에 영 의지행 아장 호꿈 애기 젓도 맥이고, 지도 좀 입 노령 가젠 영 아자시난, 아 '속'허게 좀이 들어서 좀이 드난 꿈에,
"아이 요다 쪼금 가당 흐르는 청수가 이시난, 그 물을 가 먹어보민 알아 볼 도리가 잇댄" 허난, 배딱 깨난 보난 꿈이라. (김순자 구연본, 3면)

야생의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도 특별하나, 꿈의 주체가 각별하다. 꿈을 꾸는 사람은 색시인데, 꿈의 계시를 내리는 주체는 어머니이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으나,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어머니일 개연성이 있다. 계시의 내용이 특별한데 먼저 그 물에 가서 씻으라는 쪽과 먹으라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 어머니가 씻으라고 하는 쪽은 손, 발 등을 씻고 아이까지 헹글하게 업고 있으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가 물에 떨어지면 없어진 팔이 돌아난다고 되어 있다. 죽은 어머니가 개입해서 주인공의 팔을 연못에서 재생되도록 하고 있다.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씻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청수가 흐르는데 가서 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다. 물을 마시면 알 방도가 있다고 했으니 그것은 뒤에 실현된다. 두 구연본에서 야생의 상태에서 꿈을 매개로 죽은 어머니와 만나서 그녀에게 계시를 듣는 것으로 나타난다. 죽은 어머니와 만남이 주인공의 일생을 중요하게 바꾸는 계기가 된다. 못의 물이든 흐르는 물이든 물이 매개가 되어서 끊어진 손이나 팔이 재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예시된다.

꿈의 계시에 의해서 동일한 행위를 한 결과, (13) '붙는다'라는 화소가 나타난다. 그런데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손의 재생이 꿈에 제시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색다르게 되어 있다. 단락소 (5)와 (13)이 부응하는 구연본이 있으며 호응하지 않는 구연본이 있기도 하다. 채순화 구연본에서 (5)의 가마귀가 다시 나타나서 사라진 손의 행방이 분명하게 재현된다. 그 구체적 문면을 보기로 한다.

물이 시난 이젠 물 먹고젠도 허고 허난, 그 물강 영 업더전 먹단보난, 물그메에 뭐
가마귀가 닳은 게 어뜩하게 넘어가. 경허난

“하이고! 야 저 무신 거 뭐서 놀암신고?”

물 먹영 영 일어산 보난, 손이 고자져 비여서 (김순자 구연본, 3면)

색시가 물을 먹다가 물에 물그림자가 비쳤는데 그것이 곧 까마귀와 닳은 것이라고 했다.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손이 붙은 것으로 나타난다. 채순화 구연본이나 육지부의 다른 구연본에서 죽은 어머니가 개입된 결과를 본다면 까마귀나 날짐승은 일관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편이다. 공중에서 비상하는 실체가 어머니의 대리자이다.

아울러서 두 구연본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천상의 새와 호응하는 것이 물이다. 연못과 흐르는 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물에서 손이 재생되는 사실이 흥미롭다. 물이 지니는 생산력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물은 손상된 육체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생으로 쫓겨나와 공중의 새, 지상의 물 등이 동참해서 색시의 손이 복원되는 것은 각별한 현상이다. 두 차례의 문화적 상태에서 입은 상처 끝에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서 치유되는 손의 부활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4)는 손이 재생된 뒤에 정착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단락소이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꿈을 한 번 더 꾸어서 '지에집'에 정착하리라고 예견된다. 기와집의 주인은 명시되지 않고 그곳에서 정착할 것을 알린다. 그 기와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민담적 처리 방식으로 손 없는 색시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손이 생긴 뒤에 다시 길을 가다가 작은 마을이 있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착 과정이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임이 확인된다.

정착한 뒤에 남편이 찾아나서는 과정이 연결된다. 정착과 탐색 사이에 채순화 구연본의 변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한바 있으나 문제의 해결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핵심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석 달 열흘의 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말한 바 있으므로 논의를 그쪽으로 미루고 실상을 살피고자 한다.

석 돌 열흘 되는 날은 아방하고 다슴어멍이 와서 기영호난 하인신디 그 사름신디랑 아무 것도 주지 말랜 허연 놈 뵈단 맨 내중엔 방에 들어옵센 허연 아방신딘 잘 츠려 단 드리고 다슴어멍신디 배염이영 이영 거미영 여라 추잡흔 동물덜 잡아단 그 방에 담아 부린. (채순화본, 5면)

색시가 부자가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와 계모가 와서 그들에게 접대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아버지에게는 음식을 잘 차려서 드린 반면에, 계모에게는 쥐, 거미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잡한 동물을 가져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 계모는 자연의 상태에서 더럽게 평가 받는 동물로 색시가 복수했다. 아버지는 음식을 주었다고 해서 문화적 응대를 했음이 확인된다.

계모는 자연과 문화의 조절에 실패한 인물이다. 가정이나 집을 지키지 못하고 해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계모가 여러 가지 자연의 동물에 의해서 징치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연의 상태로 회귀되는 것이며, 오히려 자연의 동물에 의해서 징치되고 보복된다. 자연과 문화의 조절에 실패한 계모가 자연적인 생명체로 환원하는 일이 제주도의 본풀이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마찬가지로의 결론이다. <문전 본풀이>에서 노일저대귀일이 축신이 되고, 축신의 시신에서 자연물이 생성되는 것은 각별하다. 색시가 부엌에서 일하는 존재인 점도 각별하다. 손 없는 색시가 물과 불을 다룰 줄 아는 존재이고 야생을 문화로 가공한다면, 노일저대귀일은 문화가 야생으로 바뀌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집은 자연과 대립되는 문화의 표상이다. 아버지가 정상적 대우를 받았다면 계모는 자연으로 대표되는 현상으로 대접받았다. 색시가 자연과 문화의 조절자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처분을 내린 자체가 자연과 문화의 분기점을 가르는 권한이 있음이 확인된다. 채순화 구연본이 지니고 있는 환상적 해결 방식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15)찾는다는 단락은 남편이 주체이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붓장수를 하면서 아이를 찾아 나섰다. 그것도 형들과 함께 찾아 나선 점이 각별하다.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옛장수로 되어 있다. 옛장수는 이 유형의 설화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 화소이다. 이 단락소가 매우 중요한데, 제주도 각편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과거에 급제한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색시를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옛장수 차림새를 하는 변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틈입자가 있어서 생긴 오해가 비로소 풀리고, 남성의 적극적 변신에

의해서 둘은 재회할 개연성을 마련한 셈이다. 오해를 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찾아나서는 것은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남성의 적극적 변신이야말로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하다는 점임을 강조한다.

(16)은 색시와 도령이 만나는 단락소이다. 남성이 찾아 나선 끝에 색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와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자신을 닮은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매개로 아내를 찾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순자 구연본에서는 아내가 먼저 남편을 발견하고서도 모른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불가피하게 남편이 다시 발견했으면서도 손이 있는 아내를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보다 분명한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 집에까지 가서 엿을 팔고, 그 값으로 조를 받는다. 그런데 그 조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반은 전달되고 반은 아래에 쏟아지게 된다. 그것을 어두워질 때까지 모두 주워서 담아가라고 했다. 남편을 부뚜막에라도 자고 가라고 유인하고, 저녁에 이르러서야 아들에게 아버지임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 들어있다. 남편의 끈기를 시험하고 마침내 재회하는 과정이 예사 다른 서사민요의 여성 주인공이 친정집에 머무는 사연과 일치한다.

채순화 구연본과 김순자 구연본은 저마다 고유한 생명력이 있고 독자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열여섯 가지의 동사형 다락소를 정리해서 살펴본 결과 두 각편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채순화 구연본은 제주도적인 변이가 격심하게 이루어져서 제주도의 지역 유형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사건의 전개 방식에서 발견되는 관점의 특성이 드러난다. 사건의 처리가 신화적 사유를 고스란히 계승하여 환상적 민담의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환상적 처리 방식에서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사건의 본질이 공유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김순자 구연본은 제주도적 정서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육지부의 자료적 성격을 우세하게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동일한 지역에서 각편의 편차가 큰 자료가 있음이 새삼스러이 확인된 셈이다. 이 자료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두드러진다. 여성의 정서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특정 국면에서는 매물차게 여성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김순자 구연본의 특성이 현실적이기는 해도, 이성화 유형의 보편성은 김순자 구연본에 잘 나타나있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두 가지 구연본은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의 제주도 변이형과 육지부 정형임이 다시금 확인된다. 제주도에는 이 설화유형의 자료가 모두 5편이 전승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 채순화 구연본을 제외하면 모두 김순자 구연본이다. 김순자 구연본은 시간차를 두고 채록되었으며, 특히 세 가지 각

편은 동일한 자리에서 거듭 구연하게 해서 얻은 자료이다. 첫 번째 자료보다 많은 부분에서 기억의 망실이 확인된다. 그러한 뜻에서 오로지 구비전승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아님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제주도에 〈손 없는 색시〉 유형의 설화가 전승되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구비전승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손 없는 색시〉 설화가 워낙 전승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이 자료들은 제주도의 구비전승적 가치를 담보하는 증거이다. 제주도의 구비전승은 참으로 각별해서 제주도적 지역 유형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제주도다운 특색을 넘어서서 육지부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료가 확인되기도 한다. 〈손 없는 색시〉 유형의 설화는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설화 분석은 행위에 관한 주체와 주체의 행위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의 분석은 '동사'적 정리에 입각해야 바람직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동사는 사건의 핵심을 집약하고 동사의 연쇄적 나열에 의해서 설화적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이 설화의 분석 동사가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석 단위를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따라서 동사의 가지 수는 나름대로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단락소로 짜여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소가 대립적 연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간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짜여진 질서를 대립적으로 강조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각편의 성세한 특징이나 생명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각 편을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사형의 가지 수를 다수 상정하고, 집약적 단위를 상정하여 추상적 차원의 논의도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동사를 전반적으로 해체해서 제주도의 고유성을 살피기 위해서 동사형을 상세하게 상정했다.

Ⅲ.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손 없는 색시〉 설화의 분석 심리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심층적 구조 분석이 요망된다. 심층적 구조분석은 상세하게 제시된 남성과 여성 가운데 특정한 주체를 상정해야 마땅하다. 그러한 대립은 사건의 순서를 다시금 재편하게 한다. 여성을 중심에다가 두고서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 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그렇게 본다면 이 설화에서는 네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손 없는 색시를 두고 대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나)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 손 없는 색시 —	의붓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아들		

(가)군의 남성은 사건 전개에 따라서 차례대로 등장한다. 김순자 구연본에서 시아버지의 구실이 두드러져 있으므로 시아버지를 상징한 것이다. 아버지는 갈등의 실행자이다. 시아버지는 갈등의 실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화합과 구원의 구현자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통속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채순화 구연본에서는 시아버지의 구실을 남편이 대신한다. 아들은 색시와 남편의 사랑이 맺는 결실이지만 그 자체로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이고 둘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의사소통은 오해이고 나중에 미래의 발견자로 기능하면서 해소된다.

(나)군의 여성 역시 사건 전개에 의해서 차례대로 등장한다. 어머니는 생산자이나 사망한다. 이 어머니는 죽은 뒤에서 여러 가지 매개자를 통해서 개입한다. 따라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다. 의붓어머니 역시 어머니를 대신하나 어머니의 조화력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갈등하고 분쟁한다. 시어머니는 조화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조화하기 때문에 색시를 받아들이나 갈등하기 때문에 색시를 쫓아낸다.

(가)군과 (나)군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계를 맺는다. 아버지, 색시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한다. 아버지, 딸, 어머니 등의 관계는 평범하나 심리적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두 여성과 한 남성은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딸이 성숙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한 남성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서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대치물로 계모가 등장한다.

아버지, 색시, 계모의 관계는 심리적 역학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상징이다. 계모는 성숙한 처녀와 아버지인 남성을 두고 격렬한 질투와 경쟁에 돌입한다. 어머니라면 다소 불가능한 상황이 계모이기 때문에 성숙했으나 옛된 경쟁자인

딸에게 지독한 모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

처녀와 계모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처녀에게 다른 씨앗을 가졌다고 위증하는 것이다. 실제 쥐를 희생시켜서 아이를 지웠다고 조작한다. 남성은 이에 동조한다. 계모가 딸과 경쟁하여 승리한다. 문제는 승리의 전리품이 필요한데 이 승리의 전리품이 문제가 된다. 가짜 어머니가 조작한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남성의 횡포가 주목된다. 남성의 횡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성숙한 여성의 징표가 예고된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자르는 것이 아마도 이 설화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이 설화 해석의 핵심적 관건이 되리라 예상된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자르는 것은 일종의 거세 불안(castration's anxiety)이다. 자신을 강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거세 불안의 증후로 구체화된다. 거세 불안과 함께 마침내는 근친상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구현한다.

거세불안과 근친상간의 심리상태는 여성들의 꿈에서 구현되기도 한다. 이야기가 꿈이고, 꿈이 이야기인 사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실제 여성들의 꿈속에서 이러한 손 절단 행위는 쉽사리 발견된다. 여성들은 손이 잘리는 꿈을 꾸다고 한다. 손이 잘리는 꿈은 여성을 유순하게 만들고 이 여성이 혼인 적령기에 이르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여성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꿈과 함께 이야기와 더불어서 표현된다면 아버지가 손을 자르는 의식으로 구체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문화적 장치인 의례와도 관련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자르는 행위는 할례의식과 잠재적 연결 가능성을 암시한다. 할례의식은 여성들의 성기를 질이 막히도록 꿰뚫어 이어서 음핵과 음순을 절단한다. 할례의식이 남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아니나 성숙한 여성의 통과의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자르는 사건이 위의 해석대로라면 세 가지 가능성에 의한 심리상태를 갖는다. 거세 불안은 개인의 불안한 심리이다. 꿈으로 예시된 성숙한 여성의 심리상태는 불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생명력을 암시한다. 의례로 구체화된 행위는 집단적인 의식화 과정의 심리라고 볼 수 있고, 집단적 폭력을 합리화한 셈이다. 확실히 개인 심리의 양면과 집단심리의 폭력은 상관되기도 하고 상관되지 않기도 한다. 문화적 표현 형태가 끔찍한 할례로 이어진 것은 주술의 폭력일 개연성이 높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딸 등의 관계가 제시된다. 심리적 상처가 아픔으로 지

속될 수 없어서 불안하고 상처 받은 처지의 여성을 구원하게 된다. 구원의 상태로 나타난 것은 간섭작용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남편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간섭 작용을 하는 것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가운데 각편에 따라서 시아버지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 시어머니를 강조하는 쪽이 있다. 이것이 어떠한 사회의 반영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문화적 간섭과 일정한 관련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색시와 남편의 만남은 잠시의 행복에 의한 구원이다. 둘 사이에 잠깐의 행복은 사라지고 장애가 가로 놓이게 된다. 장애는 공간적 거리로 구체화 되는데 그것이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리적 거리는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생긴다. 의사소통은 말이 아닌 글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것이 곧 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이 문자 조작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음을 암시한다.

편지 내용에서 핵심은 아이와 관련된다. 둘 사이의 사랑 결실이 이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되면서 둘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 관계는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아버지, 어머니, 딸 등의 관계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면서도 그들과 차이가 있다. 가족 구성원의 아들이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문제보다 둘 사이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에 간섭화 현상이 이루어진다. 편지를 가져다주는 심부름꾼이 있고 심부름꾼을 유인해서 왜곡하도록 만드는 계모가 있다.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생기고 있음을 말한다.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색시가 시집에서 축출된다. 시어머니의 의지와는 별도로 아들의 왜곡된 의사소통 때문에 색시가 자신이 낳은 아들과 함께 축출되기에 이른다.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축출된다. 남성에게 진실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처를 다시 머금고 시집에서 쫓겨난다.

남성에 의해서 상처받은 여성이 다른 남성에 의해서 구원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처가 중첩된 뒤에 다시금 축출된다. 상처의 치유는 놀랍게도 여성의 출현에 의해서 여성성으로 치유된다. 상처받은 여성이 다시금 자신의 손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쫓겨난 여성은 잠과 꿈을 통해서 상처 치유의 단서를 포착한다. 꿈의 내용이 그것이다.

꿈에 죽은 어머니가 나타난다. 이때의 어머니는 의붓어머니가 지니는 적대적 대립성이나 동성적 대결 관계를 상징하지 않는다. 근원적 구원을 뜻하는 위대한 모

성의 상징이다. 진정한 모성이 여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심층적 차원의 상징이 드러난다. 심층적 차원의 상징은 제주도 각편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나, 육지부의 각편까지 고려하면 네 가지이다.

첫째, 물을 통해서 어머니의 여성적 치유력을 환기 할 수 있다. 물이 여성을 뜻한다는 해묵은 전제가 이 과정에서 소중하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물 위에 띄우는 양수의 소유자가 여성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의 생식력은 강조해서 말하지 않아도 쉽사리 이해되리라 믿는다. 이것은 제주도 각편뿐만 아니라 다른 육지부의 각편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둘째, 어머니의 자취이다. 어머니는 죽었으나 죽은 존재가 아니다. 어머니는 꿈으로도 나타나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모성을 통해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각편은 제주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려는 가혹한 심정이 없는 두 손을 뻗게 하고 그 손 끝에서 다시금 손이 돌아나는 기이한 체험을 한다. 아들을 재발견해서 어머니 본능을 찾듯이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이 어머니로서의 모성을 되찾게 한다.

셋째, 날짐승의 존재가 심층적 차원에서 여성의 능력을 담보한다. 날짐승인 새는 여성의 곡모신적 성격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새가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신성을 보좌하면서 돕는 구실을 하는 전례를 환기한다면 곡모신의 치유력을 돕는 구실을 하는 점이 전혀 낮설지 않다.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여성만이 여성을 구원하고 치유한다는 생각을 읽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치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 아내를 찾아 나서자 그 남성까지도 감싸 안는 포용력을 발휘한다. 남성마저도 달랠으로써 여성성의 확장에 의한 작업은 완료된다. 손이 재생되면서 온전한 여성의 치유력은 일단락되며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다.

가정의 구성은 중간부와 결말부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임의적이고 가변적인 구원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구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적 차원의 본성과 자아를 회복해야 가능한 일이다. 상처 받은 마음이 아물면서 더 큰 마음으로 성숙해야 비로소 온전한 자아가 완성된다. 남성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 때문이고 여성의 흔적을 찾아 나선 것은 남성변화의 핵심적 사건이 된다.

여성은 여성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여성의 구원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남성의 존재가 불필요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다운 여성의 본심은 부족한 남성을 개조하고 변심시키면서 그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데서 발견되나, 여성은 남성 없이도 살 수 있으나, 남성은 여성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작품이 <손 없는 색시>이다.

IV. 제주도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의의

제주도 설화가 지니는 중요성은 두 가지 각도에서 증명이 가능하다. 제주도의 설화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구비전승은 내적 법칙을 가지면서 전승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고립된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유지하는 생명력 유지의 한 방편이다. 제주도에서 다른 고장에서 발견하기 힘든 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번 들어온 자료는 잘 나가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특징이 있다. 제주도에 <손 없는 색시> 유형의 설화가 두 편이나 발견되는 것은 제주도 구비전승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각편의 차이가 큰 것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해명이 가능하다. 설화의 전승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동일한 유형의 자료가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은 아마도 이 설화의 개별적 생명력이 있고,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심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생명력과는 다르게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 의해서 개체의 변별성을 드러내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 설화의 해석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이 설화의 심리학적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심리적인 상태의 구현물이고 여성 심리의 용출하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생명력에 대한 해석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마음은 상처와 치유라는 이중적 작용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에 그러한 요소가 드러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여성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가? 더 말할 나위 없이 동성과 이성 양 차원에서 비롯된다. 동성인 여성은 동일한 방향의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므로 이에 따른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다. 계모와 딸이 대립하는 것은 여성 마음의 상처를 표현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여성의 마음에 이성 역시 가해자로 남을 위협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거세불안이나 성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이러한 불안의 증후군이다. 아버지가 가해자로 나선 사실이 불안한 마음의 표현이다.

여성의 마음에 생긴 상처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인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집을 나선 여성이 잠시 남성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은 항구적인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은 집을 떠나고 아내와의 사이에 일정하게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긴다. 편지가 조작되는 것은 의사소통 장애의 진면목이다. 이 과정에 계모가 투입하는 이유는 다시금 동성에 의한 상처가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유는 미봉책일 따름이다.

여성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여성성의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연에서부터 끈질긴 생명력으로 유지해 온 여성성의 물, 어머니, 새 등이 이룩하고 있는 여성성의 심층적인 상징을 만나면서 이성과 동성에 의해서 깊이 파인 상처를 완치하게 된다. 상처의 완치는 다른 남성까지도 치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을 변화시키고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가는 것은 여성성의 마음이 한껏 확장된 결과이다. 이로써 여성은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미성숙한 자아는 비로소 성숙한 인격적 자아로 다시 탄생한다.

제주도의 이야기는 해석의 열린 시야를 만나야 비로소 참다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손 없는 색시>는 모두 여성화자들이 전하고 있는 자료이다. 남성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산한 삶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여성성의 행로를 잃지 않고 전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주도 이야기 <손 없는 색시>가 중요한 것은 이 점에 있다.

〈부록〉

제주도에 전승되는 〈손 없는 색시〉 설화
- 김순자의 각편 세 가지

1. 녹음 : 김현선
2. 녹음 일시 : 2002년 7월 25일
3. 녹음 장소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황춘자 할머니댁
4. 채록 : 이명숙
5. 교정 : 김현선

* 여기에 소개하는 설화는 필자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이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실시한 1998년도 학술조사에서 구좌읍 종달리를 대상으로 삼아서 한 차례 김순자를 조사한 바 있었다. 이 조사에 의거해서 이 자료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다시 조사해서 이 자료를 채록할 수 있었다. 김순자의 전화번호를 어렵사리 얻어서 연락하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눈치였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서 조사자를 만나주지 않았다. 요점은 자신이 밀감농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으며, 한번 나가면 며칠씩 있다가 온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집을 알아낸 뒤에 밤늦게 기다렸다가 친구인 황춘자 할머니 집에서 녹음하였다. 거푸 세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녹음하였다. 조사일시는 2002년도 7월 25일 저녁 8시 30분 경이었다.

제보자인 김순자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에서 거주한다. 김순자는 올해 72세가 되었다. 2002년도에는 70세였다. 계유생이므로 닭띠이다. 할아버지 사시던 땅인 송당리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4·3사건 당시 위험하다며 중산간 마을에서 모두 소개시키고 평대리로 옮겼다. 가족 모두가 6개월 만에 현재의 종달리로 이주했다. 17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가하고 지금은 아들 바로 옆집에서 거처한다. 그런데 2003년에 가서 보니 다시금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이 설화는 김순자가 어린 때인 주로 7~8세 때 엄마의 언니인 이모에게 들었다. "이모가 옛말을 잘 골아 줬다."고 한다. 이모는 허추봉씨로 살았으면 2004년 현재

114세 라고 한다. 이 설화는 허추봉에게서 다시금 김순자에게로 전승된 자료이다. 이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를 거듭 요구하자 당황해서 어색해 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해 주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모두 아이 적에 이야기꾼이었던 허추봉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

1. 다슴어멍 이야기(첫번째)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모를 해 왔는다. 이 계모가 딸이 어릴때게 아버지가 계모를 얻어 왔는데 이제 딸이 조금 역어 가니까는. 옛날엔 이런 디 촌에 공부도 안 시켰어. 우리도 못했어, 공부. 딸은, 여자는 공부하면 못센덴 허면서 아들들만 시켜주고 산골이고 허난 공불 일절 안했어. 경허니까는 이제 그 아버지가 마누랄 해다 사는다.

이 어멍은 인젠 딸이 혼 십칠세쯤 되니까는 하루 아침은 몸 잘루랜 허난 그 어머니가 밥을 허다가. 옛날은 이런 부엌이 아니고 막 불, 이렇게 검딩이 삼아서 때지 아궁지에. 그렇게 허단 이제 쓸을 영 놔 허단 팔팔 개는 물에서 쓸을 드리쳐 이렇게 영 허단 보난. 살레엔 현거는 사발 옆으는 살레라고 영 있어. (찬장, 찬장.) 찬장 닭은 거. 그 밑으로 쥐가 미죽 나오니까는 그 개는 물을 훑 대끼난인 그 쥐가 그걸 맞어가지고 터럭이 민짜 벗어져 뵈어. 그러니까 꼭 애기 치난 거 닭아 이. 그러니까는 이젠 그놈의 걸 확 허게시리 이제 멧에 싸다가 딸 문, 넘 자는 딸이 불속데레 가 났스고 이젠 그 신랑한디. 머허민 아버지 될 거지 그 딸은. 게난, “아이고 이 돌년 보랜. 이거 어디간 해네. 이거 애기 치난 이제. (어디가 남의 남자했니.) 애기 치난 여기 있제는.” 막 영 배우는 척 허난. 게 애기 닭았제. 민짜 털 벗어져부난. 아 경허난 이젠 그거 확 허게 배우만 해둔 아시단 곱제겨둔 허난. 하이고 이 아버지는 막 꽃말인주 알고 기냥 부애가 나서, “너 이년 일어난 이리 나오랜. 너 바른말 허랜.” 막 허니까는 혈말이 있어? 바른말이, 혈말이 어시니까, “아니고 아버지, 나 죽어도 머헌 아무 일이 어스덴.” 경허난 그젠, “아이고, 이제 너가 바른말 아니면 이 낮에.” 옛날 나무 탁 찍는 낮애가 있어. 칼 닭은 거예. “이걸로 막 이 손을 찢라볼겐.” 하는거라. (바른말 아니면.) “아이고 이걸 나가 찢라도 혈말이 하나도 엇덴.” 아, 경허난 이 지방 이년 거. 이런 거 지방, 이거 이런 것이 지방, 여기. 여기는 마루, 이것이 지방이난. 그리 풀을 노난 막 영 찍켄 해도 아니 굴안. 혈말이 엇이니까 못 굴은 거 아닌. 경헨 허난 와선 탁 찍으나네, “이거 찍은

이제 이 손이 가만이 있으면 내가 움쪽 그거 헨거구, 이 손이 어디 도망가볼며 아
 닝거로 알랜.” 허멍 탁 그제 찍으니까는 이 풀이 학 고가네 가마권가 뭐 똥스래긴
 가 몰라. 매천이 고거 확 잡아 버렸어. 그 손, 업어져 뵈어. 그러니깐 이젠 이거 피
 가 망늘 인제 영 글고 자빠지니깐, 동네 이제 집이 그 막 수건물령 영 가네 살려
 줘센 허나넨 이젠, 그 계모 어멍은 그거 배린척도 안허고 인제. 지가 거짓말 했지
 난 게. 계난 이젠 그거를 이제 헉디깨부니게 허난 야 인제 손을 기차치난 동네 직
 이가, “아이구 나 영 허멍 했수게.” 허나네 “아이구 이거 무신 말고.” 허멍 그기서
 잘 싸주난, “이제 나 집이 안 들어 갈거영.”

이젠 막 가단 가단 이제 겨울이 된고라. 막 출고 허니까는 가단보난 어떡허고
 나는 어디 들어갈 디도 없고 게 배고프고 허난, ‘아이 그러면 어찌헐꼬’ 내내 영
 가단보난 어디 막 부잣집 닭은 집이 이시니까는 거길 들어가난 다 좀자불고 이제
 엇시니까난 마당에 콩놀. 놀이 인거 콩 비어다가 이렇게 논것이 있어. 그놈 의지해
 이렇게 아저시니까는 아이 배고프난 콩깡맥일 영 가져 내가지고 툽툽 까멍 걸 입
 에 와서 씹노랜 허니까는 배고픈 것도 좀 넘어가고 이젠 허난.

툽툽 콩가는 소리가 나난, 거기 무신 그디 할아버지가 “아이 저기 쇠가 왔나 머
 있나 저기 보랜.” 그러니까는 아 나오란 보난 사람이 회드룩이 아저시난, “야 귀신
 이냐 생인이냐 이래 나, 생인이건 이래사고 귀신이건 나가랜.” 막 할오방이 외난
 “아이고 구신이 몇 때문에 여기 있수갱. 사람인댄 살려줍센.” 허난. 아 그땐 나오
 란 보난 얼굴은 그렇게 미인인디 이 풀이 기냥 막 이렇게 영 히여. 아이고 막 머
 이시나, “아이구 이거 어뎡헌 일이고.” 허난 그젠 “아이구 나가 영 여기내 이게 우
 리 어무니가 아니고 계모가 그런 일 있제나난.” 거기서 이제 보난, 이 사람이 너미
 곱고 이 행동이 너무 조니까는, 막 거 부잣집인디 아들은 옛날 어디 서울 무신 과
 건가 뭐 허랜 대학인가 허래가난, 이젠 막 욕심이 나서 거기 그 콩놀 느래진 집이
 서는, “하이구 요거 풀만 하나 살았이며는, 하이구 잘도 참말로 곱고 잘도 미인인
 디 어떻게 허꾸네.” 아들 오드룩 이젠 지내집이 우리집이 살랜 막 헌거라.

계난 아들이 이젠 막 오랜 허난 이젠 왔다가 가멍, 이제 “나 오도룩이랑 나 공
 부 다 맞춰 과거 맞춰 올때도룩이랑 여 데리고 살암심성.” 헨 아들은 가부난.

옛날은 이제 이 저울디레 살았어 잉. 일허지 못허면 남즈들 대령시기(머심, 머
 심). 머심. 저 머슴이쥬. 쇠도 보구 뭐 일두 허구 이제 그렇게 허니까는. 아 헨 삼
 일에나난 아 그 아들이 왔다가니까는 어떻게 애기가 가졌어. 애기가 가지난 이젠
 아길 나난 보난 아들이나네. 막 뭐 말을 허자면 더부진거지유. 아이고 앞이멍에 헛

남이요 무신 뒷이명에 돌님이여 막 서명 양득지에 금새별이 오신도신 현 아들을
나시난, 막 이 할아방들이 지켜지언 이 그 머슴한티 편지를 썬 아들산데 갔다오랜
“이거 아수다두 오랜.”하난.

가정 가단가단 보난 어득으난 배고프고 허난 이제 ‘쉬언 머정 저녁이 자고 그디
서 밥 얻어먹고 쟁 가젠’ 들어간경 보난 그 여자 아방네 집을 들른거라. 몰라 가지
고 들어가니까는 “아 이거 어디래 가는 사램이 영영 이시어.”나난 “아맹 아맹히여
폴 한착 손 한착 잇은 사람이 얘기를 난데 내가 편지를 가지구 간다구.” 허난. 아이
구 계민 막 그때 그 죽은 어명이 알아 먹었어. 알아먹어 가지고 그놈을 막 술이영
막 뉘이랑 잡아가지고 막 잔뜩 맥여노난, 이 사람은 이젠 그거 먹언 취헨 좀자부난.
아유 편지를 아숨에 열어 보난 ‘아이고 막 얘기가 그렇게 잘나시난 이제 막 기쁘
덴’ 해네 편질 썼이난. 아 그래 그건 아삽에 든 글에 막 얘기가 막 입듯 머 체지고
무시고 현 막 뺑신 아들을 낳젠 허께 써네. (그 계모가) 응. 그놈데레 통 놔뵈어.
놔부난 이 뒷날은 일어난 이젠 그딜 가난. 이걸 가정 간 보난 정 그렇게 막 완전
나쁘게끔 써 놓았이난. “아이구 영 해도” 그사람도 각시가 너무 욕심나서 이, 얼굴
이 너무 존생이라. 계난 ‘아이구 영허구 대구 이제 나 가두룩이랑 내조치치 마랑
가만히 데리고 살앙십서.’ 썬 이제 허난. 잘 먹어나난 이젠 뒷날 오단 또 저기 든거
아니. 또 얻어 먹으려. 아이구 이젠 들어가난 ‘아이구 이제 이거, 이거 틀림없이 무
시젠 해신고.’ 허께 또 잔뜩 망창 맥여 이젠 좀 재와두. 아 또 보난 아이구 그런 병
신 아들 나부대고 도랑 사랍시게 막 해시난. ‘아이구 또 안되켜.’ 아 이젠 ‘당장 그
거 나 쪼까불랜’ 써내 이제 담았어. 아 이제 집이 이젠 뒷날은 오난, 아 이젠 아부
지한테 주니까는 아 영 보난 ‘아이고 이거 아기 영 현거 나난 당장 내쫓가불랜.’
써시난 ‘하이구 이거 어똥허믈조코’ 막 어멍 아방들은 한탄이 머 딸믈디. 아 경해
도 아들 명령이라 어찌쿤. “이젠 얘기가 어떻허느니. 나가사데 컷덩 허멍 이렇 했
쨌.”허나네 울멍 이젠 그땐 진짜 나강게. 애길 돌앙 나갔어. 데런 나간.

이젠 또 가단가단 보나네 저 배도 고프고 얘기도 울어부난 막 참 머허고 지치
고 허난. 아 이제 몸 얼고. 그때도 추운때라 이. 추우니까는 영 이제 아자네 얘기
안아 아잔 현게, 아 무정눈에 좀이 소룩허게 들었어 이. 드나네 하 꿈에, 이젠 “어
디 흑꿈 가민 그 흐르는 청수가 이시난 거기강 그 물을 먹으면 알아볼 도리가 이
시리라.” 해. 꿈에 학 선몽을 해. 아진 것이 마 발을 이렇게 해낭 아지난. 경허난
아 이젠 아이고 이상허다 이상허다 해. 아 저 호꿈 가단보니까는 물이, 진짜 내리
는 창창한 쪼그만한 물이 이시난 물두 먹구정허고. 아 이젠 저기 이젠 들어가 그

물을 먹었어. 먹으니깐 아 영 옅더져 물을 먹노랜 허난 아 무시저시 물굴매가 어
 뜯허난 '하이고 무시구' 허구 보난, 아 손이 오꼳 다 붙은거 아니. 툇 오란 손이
 이서네. "하이고 이 손, 나 손이 어디시단 와신고." 이제 이걸 막 먼지갔다 다
 가 막 해봐도 손이라. "아이고 야 이럴 수가 이신가, 이럴 수가 이신가." 형게. "아
 이고 나 이젠 영 허민 아무디 가도 살로구나." 현게 그게 기쁜 이젠 막 참.

아이 가단가단 이젠 어디고 어디 또 머정 들어가 또 이제 좀 빈디서 "이제 오늘
 밤 자 어디가나 어디가나." "아이고 영 곱닥한 사람이 얘기 델고 어디 감시나, 이
 제 난." 거기도 가난 막 사람을 보난 욕심난거라 이. 경허난 "이제 아이고 어디 가
 지 말양 우리집이서 살랜. 우리집이서 살고. 이 얘기더렁 어디가 못사니까는 우리
 집이서 살면은 이제 살암시면 얘기도 여가불고." 허니 이제 머헐거여. 그질로 가난
 이제 저길 이제 살게 되서.

살게되난 거기 방해내 살암시난. 그 아들이 온거라 이. 오란보난 각썩 내좃아 빚
 어 얘기영 다 이. 계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무사 그런 불쌍헌 사람을 내났수
 파? 벨거이 허고 대고 가만 놔두지유. 어떡허난 경헌 사람이." "이놈이 새끼야, 나
 경헌 얘기 놔 헨디 어명헌 일이고?" 그땐 머슴을 심어 답드리 허난, "아, 가단 저
 어디 들러래 막 머 먹은 일 도랜이서도 타른 건 아니고다." '아이고 요거 틀림없
 다. 아 이젠 그 어명 아방이 틀림엇구나.' 해여네.

아 이젠 허난 이 사람이 각썩을 찾을 도래가 엇어 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배우
 난 머린 좋아났어 이. '하이고 이제는 이 얘기 이 각썩을 어디강 찾을쿤.' 이젠 옛
 날은 그 영 사과학구 난 학구에 이제 불콰 서너개 뭐 엇 서너방울 놔 그거 툇 지
 고 다녔어예. 옛장시 이. 설렁설렁 (도부장시, 도부장시) 옛사세요 옛사세요 댕기멍
 막 마을마을 돌단 보나네, 아 툇 지네 각썩 닳은 사렘이 물. 옛날에 물 허벅을 이렇
 게 지엿지, 제주돈 모양이라, 물허벅지 지는 거 보면, 물허벅을 이렇게 지연 가는
 거 보난, 아 얼굴은 보난 틀림없이 자기 각썩라. 이상허다 이. "아, 아지마 옛 사세
 요, 옛 사세요." 만 허난 "아 우리집이 오면 사께." 여자도 안거라 이. 아 경헌디 손
 을 보난 양착이라. '야 닳으긴 해도 아 우리 각썩 아니구나.' 헨 들어간게. 아 헨
 다 지여 어둑은디 이젠 엇을 사는디, 뭇 쟁 사느냐 허먼은 옛날 쫓썰. 제주돈 생이
 라 이. 옛날 쫓썰을 쟁 사는디. 쫓썰을 영 잘리 받으니까는, 여자가 그 값을 쌀을
 주면서 이렇게 바로 비와줬으면 될건디 걸 옆을 알아가지고 반은 잘루테게주고 반
 은 알데레 쏟아줬어. 겨난 "아저씨 그거 어둑 밤 내일꺼장이라도 다 만 좃어가랜."
 경허난 이젠 "쫓언가젠 허난 어둑어부난 어똥허코?" 허난 우리 여. 굴묵엔 헌거

는 이렇디 이 방 따뜻허랜 막 불때는디가 이서. “그디 가서 자고가랜. 경헌 줘언가 랜.” 허난. 아 이젠 밤, 그거 죽단 어둡으니깐 그지라도 머 이젠 잤어. 잔 아저시난, 이젠 애기 엄마가 “야, 저기 이신 사람이 너네 아빠다. 아빠! 헨 가그네.” 아빠가 아니고 아버지했제, 옛날엔. 제죽말로 아버지 허랭허낸 종칸 아버지허나네, 그때는 찾아내 막 기뻐 울멍 실르멍 이젠 데런 와가지고 잘 살다 참 돌아갔다고 혀.

2. 다숨어멍 이야기(두번째)

참 어무니가 돌아가세가지고 아빠가 이제 계모를 해왔는디, 아이 어떻게 들언때 해다가 요건 어멍 좀 혼 심칠세줌 되니까는 아이고 계모가 이제 아이고 이제 지네 아빠보고 “아이고 저기 보랜.” 이제 아침밥을 허다가 살레 밑으로 쥐가 미죽 나오난 더운물라상 확 치대기니까는 그것이 미짜 터력이 벗어져가지고 아 그것이 똑 애기 치난 것 같이 되니까는 이제 아방신디간 “아이고 요저 보랜 저거 어디간 서방해내 애기 뵈 치나제.” 허멍 그눔을 이제 아시다 확 곱져둔 아방신디 막 머락 허니까는 아버지가 고정 들거 “아이고 너 이년 어떤 일 있나 바른말 허랜.” 헌게. “아이고 난 아무 일도 어스덴.” 그렇게허니까는 “아 이젠 너 손목을 찢라볼켄.” 허난, “찢르고 키치고 나 죽에비도 내가 헐 말이 어신디 왜 경 험수게.” 허난. 아인 게아니라 기냥 손목을 촌 지방에, 산방 지방에다 놓고서 이제 찢으니까는 끄차지 난. 아 그 손목이 끄치난 오꽃 이제 머 매산디 머시 오랑 확 가지가빈 아무것도 없어. 손이 없어. 계난 이사람은 ‘아 이젠 아방도 필요 없고.’ 나영 이웃이 나간 것이 기자 앞발인양 간거라 이.

부애도 나고 울멍 실르멍 앞발인양 가단 보난 어둡은, 아 이젠 배고픔도 오고 갈디가 엇으니까는 어디 마을을 땡기니까는, 아 영 보난 마당에 늘 늘어진 집을 들어가시니.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배고픔도 허니까는 콩을 늘어지난 콩을 이렇게 푹푹 까면서 씹음시난. 밤엔 이제 그디 할아버지가 “아이 저기 소가 왔나 머했나. 막 콩먹는 소리가 딱딱 남젠.” 허난 확 문열언 보난 아 희드룩허게 사람이 아자시 난 “아이고 귀신이나 생인이나.” 허난 “아이고 귀신이 멧하레 여기 와있습니까. 생 인이덴 좀 살려주고 도와줍선.” 허난. 그것이 나오랜 이젠 보난 아이 사람은 그렇게 미인인디, 아니 막 기냥 사람은 참 풀을 기차지난 그렇게 묶어아전 이젠 그걸 와 신디. 아이고 어멍헌 일인인 보난 불쌍도 허고 너무 가여완. 허나이젠 들어오랜 허 연 그거 다 딱아주고 약 잘 해준. 허난 이젠 할으방이 너미너미 이제 얼굴도 좋고

허니까는 자기 이제 메뉴리 했이민 좋거라도. 이제 아들이 이제 어서 부니까는. 어서부니까는 이젠 그거를 어떻게 하민 좋구닌. “아유 우리집이 그대로 살아요 살아요.” 허난 살랜허난 그냥 이제 좀 사난. 하도 고니까는 이제 아들신디 한 번 왔다가 랜. 아 이젠 오나네 참 아들도 보난 마음이 폭들어. 허난 그렇게 이젠 그걸 메뉴릴 허젠 아들 “갔당 따시 오랜.” 허난 가난.

저 머꼬, 이젠 가부난 이젠 막 살아가는게 어떻 애기가 가져 애기 이젠 난게. 저, 허니까는 애길나난 이젠 그 애길낭젠 펜지를 썬 이젠 아들신디 머슴한테 이제 보내니까는. 저 가단가단 이젠 요것도 배고프고 허난 경헨허난. 이젠 ‘아이고 요거 어떻헌거 경헨 거로고나.’ 이젠 자기네 확 눈치알앙. 그걸 이젠 막 닭 잡고 막 헨 잘 맥엔 술맥엔 눈 좀자둔 보난 펜지를 보난. 진짜 막 좋게 막 ‘앞이명에 햇님이여 뒷이명에 들님이여, 아들을 그렇게 잘났다’고 막 이젠 써 이시난. 그걸 이젠 지네 가전 찢어두네 이젠 막, ‘병신 애기 이젠 막 머시 토라지고 어찌고 헌걸 낳시난 어떻허는이.’ 헨 이젠 그걸 써 붙여난. 이제 그서 잘 얻어먹은 뒷날은 그걸 얻어먹으며 아서 이젠 간 펜질주난, 막 병신을 낳다고 이젠 막 썼이니까는. ‘아이고 아부지 어머니, 병신이라도 좋으난 나 가도록이랑 잘 데꼬 살앙십서.’ 헨 썬 보낸나부난. 아 또 이젠 오단 또 잘 얻어먹어나난 또 그 집일 들언. 아 이젠 허단보난 또 막 맥엔 이젠 이거 ‘아이고 이런 애기 낳이난 내쫓가볼라.’ 이젠 썬 다 헨 담아부난 오라난부난. “아이고 애 이놈의 자식 어떡허면 조쿠. 이걸 내쫓강 어떻헨꺼고.” 이젠 해도 아들이 내쫓가 볼랜 헌거는 헨 수 어시 “이젠 나가야되키 어떻허는이.” 했니. 이 사람도 가이엇은 사람 막 그 애기 업고 그 엄동설한에 나가든 어떻허리.

가단가단 보난 지침두 허구 애기두 울구 허난, 뜨슨 이젠 영 해내 애기 하나 나진 것이 무정눈에 좀이 들언, 허난 수록허게 좀든거린 꿈에 어숙허게 “아이고 요디 가당 쪼끔 가당 흐르는 청수가 이시난 그 물을 먹어보민 알아볼 도래가 있다.” 파들락 깨나난 아숙헌 것이 좀에서 꿈이라. 아닌게아니라 가단 보난 물두 먹구정도 허구 배고 고프고헨 영 엮더전 그 물을 먹젠 영 허난. 아 무스거시 물굴매에 어뜩허난, ‘아 무시건고 가마간가.’ 헨 영 보난 아 이녀 손이 오랑 턱 붙어있어. ‘아이고 이상허다. 아거 머 나 손이 어뜩헌 영 고자신고. 이게 바로 꿈 닭은 일이다. 어뜩허면 쫓고.’ 이거 막 몬직았다 몬직았다 벨 일 다 허니까는. ‘아이고 이제 나가 어디가도 살겠다. 이젠 애기 달아도 내가 산다.’ 고. 경해가지고 이젠 갔는다.

또 가단보난 춤 어둡고 이젠 마을을 찾으난 어떤 집이 들어간 ‘아이고 이디 춤전 빌립서 오늘 저녁이나 어디 묵언가게.’ 허난 “아이고 경허랜. 애기도 너문 영

때난 영 어둡은디 추운디 나사신.” 허난 “아이고 경 데리고 나왔이다.” 허난. 그젠 이젠 그 집이 머정 살아가난. 츄츄 이젠 할망 할으방들 두 웬일이니·웬일이니 물어가난, “나 영영헌 사람이우다.” 헨 기자 살아가는다.

아 이젠 그 신랑되는 사람이 오라는 보난 이제 아기도 엇고 각시도 엇이니까는. 아이고 아방은 오난 막 때리젠 “이놈의 자식아, 왜 내쫓아불랜 해시니.” 아 이 막 허난, “아 이 나 내쫓으랜 헌짓 엇이다. 거 무신 말이겐.” 허난 그땐 그 머슴을 심어내 답드리허난, “아 가당 먹고 오당 먹고 막 잘 먹은 집은 이서도 내가 그런 건 아니했젠.” 경허난 아 그게 이젠 ‘요거 틀립엇이 요거로구나.’ 해연.

아 그게 이젠 이 사람이 ‘아이 나가 옛장실 찰령 나가야 이 각실 찾을로구나.’ 해연. 이 사과하고 나무학구에다가 이 옛 해꿈 놓고 불곽 서너개 놓고 해가지고. 옛날 성냥 불곽. 거 놓고 헨 이젠 짙어지어 이젠. 화 촘 제주들 다 돈거라 이. 이제 걸으민.

경헨 돌단보난 아 똑 각시 닳은 사렘이, 옛날 물허벅에 물을 이렇게 지고 다녔어. 게난 지난, 지영 가는거 보난 ‘저 사렘이 틀립엇이 우리 각시가 틀립엇는디 어떻게코.’ “아줌마 엇이나 사세요.” 허난 “이리 오면 사켄.” 경허난 이젠 그리 따라가난. 아 이젠 옛을 사는게 돈이 엇으난 “쌀이나 쥘 사켄.” 허난. 쥘쥘게, 옛날 쥘쥘을 쥘 사는디. 혼 되박에 사는디 혼 되박을 허는디 이렇게 자리 부으난 반은 자리데레 붓고 반은 알데레 쏟아부렸어. 게난 이제 “그 쥘을 다 쥘언가랜. 널 널 붓고데구 널 다 쥘언가랜.” 허난. ‘아 요것도 이유가 이신 말이구나.’ 헨 이제 걸 쥘는척허단 어둡으난 “아 이 어디 쥘 자야쥬 안되켄” 허난 우리 여디 굴묵 이시난 거기 자면 된데. 아 경헨 허는게 밤 혼 아마도 열시쥘 된거 아니. 경허난 “아기야 저디꺼 저디 이신 사람 니네 아빠매 아부지 허랜.” 허난 아이고 간 “아부지” 허난. 그게 막 기냥 좋안 들오란 아이고 정말 “아이고 어떻게난 손도 경 됐인?” 헌게 막 기냥 운다 분다 헨게라. 그거 돌아노란 이 집이오란 촘 부모들 화도 풀리고 그땐 막 잘살안 허단 참 돌아가셨다고.

3. 다슴어멍 이야기(세번째)

저 어무니를 일러분 딸이 있는디 어떻게 아부지가 계모를 해와서 사는디. 혼 십칠세쥘 되니까는, 아 이제 엄마가 아침에 이제 밥을 저다가 아 살레 밑에레 쥐가 메쥘 나오니까는 그 더운물을 놔서 치대기난 쥐가 완전 털이 민짜 벗어지고 똑 애

기 티난거 같으니까는. 그것이 아이고 이제 확 허게 뭐 참 걸레에 싸다가 “이거 아
 ▶▶ 보랜. 이거 보랜 이거. 딸이 어디간 머해내 이거 애기 치났젠.” 허난 확 배와났단
 뎡개부런 허난. 아 이젠 아버지는 그걸 고정들어가지고 아 이젠 “이 새끼 너 어떻
 현 일이나? 바른말 허랜.” 허난 “아 나는 아무 것도 아무 일도 엇는디 어디가 무신
 바른말을 허랜 험수게.” 허난 “아 이게 이놈의 새끼 막 손목다릴 잘라 불켤.” 허난
 “아 질를 많이 죽에도 난 험 말이 엇댄 먼 말을 험니까?” 해난. 아난게아니라 기냥
 손목을 기냥 탁 찍으난 아 그 손이 고만 어디 간곳도 엇이 확 엇어저어. 아 경하난
 이젠 아이고 이거 참 이상허다. 이거 마 완전 매천이가 차가빚구나 현게. 아 이젠
 그 참 영허난 ‘아방도 필요없구나.’ 해내 이젠 동네집일 지어가난 동네사람이 그
 손 잘라진디를 잘 영 수건으로 묶어주니까는 ‘아이고 난 아무디나 가당 죽어불켤.’

찾김에 기냥 막 앞발인양 가단 보난. 아 이것이 이젠 어둑음도 허고 배도 고프
 고. 어떤 집이 영 보니까는 마당에 늘 늘어진 ‘요 애미라도 아작단 가젠.’ 간 아
 지난 배고프난 콩을 톱톱 까멍 먹노랜 허난. 그 집이 할아버지가 “아 저기 삐삭삐
 삭 뭘 소리가 남덴 저기가보랜.” 허난 문 열언보난 “아이고 저기 먼 콩울냄이 사
 람 닭은 거이 있젠.” 허난 아 그땐 “거 누구냐? 귀신이나 생인이나 와 보랜.” 아
 경해허난 이젠 그땐 나완 보난 참 사램이 아주 뭐 “귀신이 여기 있습니다.” 허니
 까는 아 그것이 이제 아 어떠한 사실이 이리 들어오랜 막 불쌍도 허고 허니까.
 “아이고 이젠 이거 어떠한 일이고.” 허난. 아 나중에 이제 참 영영 해내 했던허난
 “막 이제 그애기 델곡 헨디 이리 들어오랭.” 허난. 이제 거기 그 집이 그냥 참 하
 도 얼굴도 그렇게 미인이고 고우니까는 아이고 우리 영 살겐 헨 사는게. 아들은
 머 공부허랜가 멀헨가 가신디 “아이고 한번 왔다가랜.” 허난. 완 보난 참 그 사람
 은 그렇게 곤디 손이 한착이 엇어부니까는 이게 병신 아니게. 게난 병신이난. ‘아
 이구 저렇게 곤 사램이 어떻게 정 되신고.’ 해내. 참 좀 살다가 이제 또 가비신디.

아 애기가 가전 나는게 막 아들을 난디 그렇게 완전 뭐. 아이 할망들 ㄱ를때보다
 더 재미신디 ㄱ른다. 앞이명에 헛님이영 무신 뒷이명이 돌님이영 막 양독지에 금새
 별이 오신도신 현 아들을 낳서. 하도 잘나니까는 ‘아이고 이제 영현 아들을 낳젠’
 펜질 썬 아버지가 그 머슴한테 “앗다 쥐된 오랜. 강 오랜.” 가단. 가단가단 지치니
 까. 엔날엔 게 차 어스니까는 걸영 땀이지나난 멀었지. 게난 ‘아이고 이제 어디 강
 밥이라도 얻어 먹영 가야중’ 헨 들어간 것이 아 그 여자 친정집을 들어간 몰르고
 들어가난 “아이고 어떠한 사람이내난.” “아이고 아맹아맹해내 이제 풀한착 어스 여
 자가 애기를 나신디 막 영 험 이제 펜지 아상가노랜.” 허난 확 알아먹어. 아이고 요

저 큰일었이 우리 딸이구나 해내. 거기서 이젠 막 잘 맥연 이젠 막 술먹연 치 완 녹져둔 재와두네 그 팬지를 난낸 보나네 이젠 '아이고 이제 막 영한 막 고사골 듯 왁 아들을 잘났제.' 헨 써시난 확 허고 헨데께두네. 이제 글에 '막 이 입도 틀아 지고 막 병신 아들을 낳덴' 헨 이제 썬 글을 담아부니까는 그걸 이제 몰르고 뒷날 은 가정가난. 아 이 막 이렇게 현 아들을 낳젠 현 어떻허면 좋느니 내 좃카부니 어떻허니 썬 보내부난. 아 이 또 어떻헌게. 아 이젠 또 아이고 그런 아들이고 아무거고 이젠 나 가두룩이랑 데꼬 살암십선 막 헨 나두난. 아 오단 잘 먹어나난 또 그 집이 들어간거 아니. 기영 그 집이 들어가난 아이고 이제 요걸 어떻허 또 보코 한게. 아 이젠 참 또 시켄 막 잘맥연 이제 좀 재와둔 이제 그걸 또 아맹 보니까는, 아이고 이걸 막 내좃가불랜 썬 이젠 담아분거아니. 게난 오랑 "아이 갔다왔습니다." 막 주나네 보난, 막 '아 이런 거 내좃가불랜.' 해부난 아이고 이젠 아잔 고민고민허단 어떻허쿤. 아 옛날 어른들 더 아니 내좃아도 될건디 경허고댕여. 내좃아부난. "애기야 아맹해도 나가야 될키여. 이젠 맹령이 내런 혈수가 엇단." 허난.

그게 이제 애기 엇고 해야산 이젠 가는게 참 겨울 추울땐 ㄹ라 가단가단 지치고 배도 고프고 물도 먹구정 헨디. 의지에 호꿈 영 아진게 수록허게 좀이 무정눈에 좀이 들어나난. 아 그 좀 쪼끔 든디서 "아이고 요디 쪼끔만 가당, 인제 쪼끔 가민 조그만헌 흐르는 청수가 이시난 그 물을 먹어보민 알아볼 도리가 있단." 허난 확 깨난 보난 그것이 꿈이여. '아이고 이상허다 이 이상허다.' 헨 쪼끔 가단 보난 그 물이 이서. 경허난 이제 그 물을 먹구정두 허난 영 업테정 먹젠 허난 물굴매에 멋이 어뜩허게 나오난. '아이고 무시건고' 하고 보랑 아 이녁 손이 바짝 곳아분거아니. 경허난 다 손이 암만 쓸어봐도 손이라. "아이고 이거 진짜 이젠 나가 어디가도 살았구나." 해내. 아 이 막 기빠가지고.

이젠 애기 업어아지고 막 가단보난. 이제 마을을 찾언 들어가난. 이젠 어떤 집이 들어가난 "아이고 이제 호꿈 머정 날이나 붉게 해줍서." 허난. "아이고 어떻헌 애기 어머이 영 어둡은데 나와가시나난." 그게 이젠 아예 그 집이 이제 기냥 딜연 살게되난. "아 어떻헌 사실이고." 자꼬 해도 "나중엔 굴우쿠덴." 허멍 말 안연 살루덴 허난.

아랜 그렇게 허난 혼 몇년 된거지 이. 몇년 되니까는 그 신랑이 오란 자기 집이 막 오란 보니까는 오꼳 나가비여노시난. 아 아버지는 오난 "너 이놈의 자식 왜 내 좃아불랜 하시니?" 막 허난. "아이고 나 그런 거 아니우다. 먼 때문에 내가 내좃으랭 험나켄?" 경헨디. 이젠 저 머슴을 담드리허난 "아이고 가단 막 잘 얻어먹고 오단도 그리 들언 먹고 현 뻘이 다른 건 아무것도 현게 엇덴." 허난 확 알아먹연

‘아 요고 틀림없이 친정집이 가났구나.’ 해연.

아 그것이 이젠 거기서 또 저 머하난. 아이고 이젠 이 각시를 찾아보젠 허민 찾아볼 길이 어스니까는 ‘내가 옛장실 행 나서야 이 사람을 찾을거나 내가.’ 핸덴. 옛 서너개 난 이 째어전 “옛 사세요 옛 사세요.” 겐 막 이저 ㄱ외 하나 혼들멍 다닌거 아니게. 막 마을마다 다 돌단 보난 또 가기 각시 님은 사람이 이제 물허먹지구 이젠 물을 지여 가져날. “아줌마 옛 사세요 옛 사세요.” “아 이리 따라오민 옛을 사켄.” 허난 아 따라가난 옛은 사는게 돈이 없으니까는 쓸로 반앙가랜 헨 줍술을 주는데 줍술을 받은 잘레데레 비우고 받은 알데레 쏟아비렸어. 경하난 “아이고 이저 쏟아볼면 어떡허우짜.” 허난. “아 그거 널거장이라도 좃어가랜.” 기해가난 이 사람이 머리에서 ‘아 요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헨 이제 그놈을 좃다가 좃다가 버치난 어둑으난 “아이고 좀 머정 어디 좀 좀 자야지 안되켄.” 허난. “요 굴목에라도 좀 자랜.” 아 경헌 것이 이젠 그 아들이 밤 혼참 멧시되가난 “아이 저디껴 너네 아버지매 강 아버지 허랜.” 하난 “아 아버지” 헨간. 하난 “그게 틀림없이 긴게 어떡허난 손인 고자신곤.” 헨게. “그것이 막 걱정근심 이랴는디 손이 고지난 이상허다.” 헨. 참 오란 막 “아이고 정말 찾아지난 반갑덴.” 헨. 그게 이제 애기 데꼬 각시데꼬 훗날 막 잘 살다가 돌아갔다고.

(할머니, 한 쪽 팔을 짤른 겁니까?) 응. 왼쪽을 짤랐다고, 왼쪽을. 이 밥 먹는 쪽은 아니고 영 허니까는 아 이렇게 막 쓸었다가 쓸었다가 이젠 헨 보난 손이 고자어. 게난 그거이 머인가 허면은 어머니 혼정이 그걸 갖고 다니다가 붙였다고 허. 문제는 그 말 안풀어졌지.

(팔 하나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게 독수립니까 맵니까? 뭐예요?)

매 님은게 차갔덴 허난 그건 몰라 게난 내중에 어머니 혼정이라고 해여 그것이. 어머니가 갖고 다니다가 그걸 붙여줬다고. 물먹는디 어떡헌 것이 풀이 고졌다고.

(계모를 제주도 말로 뭐라 그래요?) 다슴어멍.

(그 다슴어멍이 나쁘게 인제...) 응. 다슴어멍이 나쁜 거. 그 딸을 막 주여볼젠 완전. 그 딸을 못살게 굴언. 편쩍헌 딸을 그렇게 찌그린거.

(아까 청수 흐르는 데에서 이렇게 인제 물 마실 때 ‘물꿀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꿀매가 뭐예요?) 물애, 여기는 물이면은 영허민 일로 영 매담인게 날아가니까는 물에서 영 비친거 아니여 게. 거울같이 아래서 보여. 물에서. (그래서 물꿀매라 그랬어요? 그거를.) 글썸. 굴매라 히여. 굴매영 히여. 여기 제줏말은. (그럼자쵸? 보통말로는.) 응. 그럼자.

〈Abstracts〉

An analysis of the Female psychology and comparison
of the version 〈Bride without Hands〉 in Je-ju Do.

Kim Heon-Seon

A tales which transmitted in Je-ju do are important in two ways. Not only tales but also oral traditions have a inner Principle. Because Je-ju do is isolated from land, It's peculiarity was preserved.

There are many versions which cannot find another area in Je-ju do. The 2 versions of Bride without Hands were recorded in Je-ju do. There ar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2 versions. Although the individual difference, they are alike in inner soul.

Fundamentally this tales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t's relationship can explain by the interpretation of psychology. Woman's mind affected by the duplicative action-Wound and Healing.

This tales come out woman's mental state. Because this tales pursuit plural value, It could contain a distinction any other stories.

Key Words: 〈Bride without Hands〉tale, A difference of version, regional type, A female gender, A explanation of female psychology